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광양지역 초등학교 학부모

예술중학교 설립 기대감 ↑

27개교 2~5학년 학부모 대상 조사 긍정적 답변

광양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예술중학교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개교 예정인 공립(가칭)창의예술고등학교 내에 부설 예술중학교 설립에 관한 예비 수요 조사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왔다.

이번 조사는 광양시에서 지역 초등학교 27개교에 의뢰해 지난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 간 2~5학년 학부모 6,0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는 3,707

명으로 61.7%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항목은 예술고등학교 건립과 예술고등학교 부설 중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 예술 전문 부설 중학교 설립 시 자녀를 보낼 의향이 있는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가칭)창의예술고 부설 중학교 설립에 대해 29.9%인 1,100명이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응답했으며,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 대답도 51.3%인 1,900명이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예술 전문 부설 중학교 설립 시 자녀를 보내겠다는 설문에서

는 62.3%인 2,311명의 학부모들이 보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2020년 개교 목표로 추진 중인 (가칭)창의예술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34.5%인 1,278명이 매우 잘한 일이라고 응답했으며, 38.8%인 1,432명이 대체적으로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은 88명으로 조사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예술중학교 설립에 대한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알 수 있었다"며 "예술중학교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에 건의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황경석 기자

순천시, 다양한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으로 시민 '큰 호응'

지방세 카카오톡 알림톡 및 간편 납부·납세자보호관 배치 등



2018년도 순천시는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을 펼쳤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올 한해 시민의 편의와 재산권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

마트폰을 활용한 '카카오 알림톡 및 간편 납부 서비스',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고충과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세금 교실' 등 다양한 세무시책을 운영했다.

'카카오 알림톡'은 시에서 카카오 앱을 통하여 기존에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에 메시지를 발송하면 납세자는 공인인증절차 없이 생년월일 인증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형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지방세 업무 경력을 갖춘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감사부서에 배치해 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세무 상담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등 시

민생활발성향 상담과 세무조사, 체납처분의 시정·중지 및 소명 요구, 집문·조사권을 활용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부터 세무상담 제는 기부를 약속한 관내 세무사 10명을 '마을 세무사'로 위촉해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 세무사'와 '납세자보호관'이 함께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노인장수 복지대학과 청춘창고 등에서 운영하고 있어 소득세, 증여세 절세방안, 지방세 구제절차 등 각종 편의시책 홍보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순천시는 2019년부터 빠르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시민들이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종이 고지서를 대신하는 '전자고지서'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순천=김승호 기자

'제2기 광양시 청년 서포터즈단' 모집

광양시는 청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SNS로 널리 알릴 '제2기 광양시 청년 서포터즈단'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인원은 30명 내외이며, 광양시 거주 만 18~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 서포터즈에 선발될 경우 2019년 1년간 광양의 청년정책과 각종 소식 등을 취재해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고, 광양시 블로그와 SNS 등에 게재해 홍보하게 된다.

또 청년 정책에 대한 제안과 아이디어 제공, 각종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청년정책의 공유와 확산에 앞장서게 된다.

시는 청년 서포터즈단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취재활동에 따른 소정의 원고료와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고, 팸투어 지원 등 다양한 활동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서포터즈단에 관심이 있는 분은 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블로그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gwangyangsi@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양=김승호 기자



공론화위, 순천시에 쓰레기 정책권고안 전달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에 따른 쓰레기 문제 해결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운영되어 온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가 10일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순천대 박상숙 교수)는 지난 9월 7일부터 100일 동안 시민 대표 75명이 현장조사, 정책토론 등 총 15회의 숙의와 정을 통해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정책권고안'을 마련하고 오늘 허석 순천시장에게 전달했다.

정책권고안에는 ▲ 빠른 시간 내에 매립지 확보를 위한 행정적 절차 진행 ▲ 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양한 처리시설의 도입 검토 ▲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통합적 관리 기구와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민관 협력 기구 설립 ▲ 거점관리수거방식의 도입 및 시범운영 ▲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동일한 행

정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조치 등 6대 권고내용이 담겼다.

허석 시장은 "찬성과 반대의 정책결정이 아닌 쓰레기 정책 전반에 대한 공론화는 어려운 과정이었음에도 100일간의 숙의 과정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자원순환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담아주신 공론화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공론화 과정은 순천시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한 단계 더 진전시켰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한층 발전된 자원순환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연말까지 공론화 추진 전 과정을 담은 시민참여 결과보고서를 발행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자원순환 거버넌스 등 민·관 협력 기구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권고안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순천=황경석 기자

영광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순항

영광군은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건강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내년부터 결혼장려금과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 난임부부수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용료 지원 및 영광군 신생아양육비 대폭 확대 지원 등을 위한 조례개정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조례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결혼장려금은 만 49세 이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부부 중 1명이

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3회에 걸쳐 500만원을 지급한다.

임신부 교통카드제는 임신부 등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 시 지원한다.

또한 난임부부에게도 본인부담금 중 체외수정 1회당 최대70만원, 인공수정 1회당 20만원을 지원하여 자녀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며, 지원기준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법적혼인상태의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로 시술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용료 본인부담금 지원은 신청일 기준 산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중 10%를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며, 출산친화도시로 기반확충과 함께 신생아 양육비를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과 다섯째부터 아홉째까지 3,000만원 열째아 이상 3,5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군은 지속적으로 함께 낳아 함께 기르는 출산친화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예비(신혼)부부 무료건강 검진비 지원, 임신부 산전 무료조음과 검진비, 행복한 출산 임신부교실운영, 신생아 양육비 상담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확대지원 및 공공시설 임신부 전용주차장과 모유수유실 설치, 분만신부인과 운영, 임신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특별기획전 개최

내년 2월 10일까지 55일간 함평군립미술관서



함평군립미술관이 18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을 개최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우수한 소장 작품을 지역민과 공유해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를 완화하고자 마련된 이번 전시는 '꿈꾸는 겨울', '일상적 관계'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꿈꾸는 겨울'을 주제로 한 제1전시실은 겨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26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일상적 관계'를 주제로 한 제2

전시실에는 관계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26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월요일 휴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국립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은 문화적인 작품과 일상의 소재를 다룬 작품이 공존하는 색다른 전시"라며, "지역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성스레 준비한 만큼, 많이 찾아주시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